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

-민족과 민요의 발견-

林慶花*

目次

1. 한국에 소개된 ‘우타고에’운동
 2.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
 3. ‘우타고에’운동의 이념: 민족과 민요의 발견
 4. ‘우타고에’운동의 침체
 5. 맺음말
-

1. 한국에 소개된 ‘우타고에’운동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는 일본의 진보적인 민간음악운동단체인 ‘우타고에’운동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정확히 말하면 1998년 3월 31일에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會)’ 대표단이 ‘한국민족음악인협회’(이하 ‘민음협’)를 방문하여, 양 단체가 교류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중요한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1월 21 ~ 22일 ‘우타고에 50주년 기념 제전’(토교국제포럼)에 ‘민음협’ 음악가 15인으로 구성된 한일문화교류 프로젝트 그룹인 ‘삶.뜻.소리’가 참가하여, <아침이슬> <대결> 등을 일본합창단과 같이 불렀다.

1999년 4월 2일 ‘제주 4·3 항쟁 전야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최)에 ‘우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일본시가사

고에'가 참가하였다.

1999년 5월 18일 '5.18 기념행사' 전야제에 '우타고에'가 참가하여, <아침이슬> 등을 불렀다.

2000년 5월 18일 광주항쟁 20주년 기획 국제평화음악제인 'HUMAN VOICE'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의 음악인과 함께 일본의 '우타고에'도 참가하였다. '민음협'이 주최한 이 행사는 "예술을 통해 5.18 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 세계적 민중운동으로서 5.18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민주와 평화의 근현대를 함께 해 온 세계 각국의 음악 팀들과 국내음악인들이 함께 만드는 국제음악제"(*『OhmyNews』* 2000.5.16)였다고 한다.

2001년 10월 18일 '2001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우타고에'가 참가하였다.

2001년 10월 20~25일 '삶.뜻.소리'가 일본 5개 도시에 순회공연을 가졌으며, 일본 민주인사를 초청하여,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대담을 행하기도 했다.

2003년 8월 2일 한일 합창음악회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분쿄구 시비쿠홀). 이 행사는 "풀뿌리 민간외교"로 열리는 한일 합창음악회"(NHK AM 제1라디오. 한일 월드컵 1년을 돌아보는 한일교류 특집방송)로 보도되기도 했다.

2003년 10월 11일 한일합창음악회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어 합동공연을 가졌다. 한국의 '음악이 있는 마을'(단장 이강숙)과 일본의 '오쿠보혼성합창단'(단장 쓰지 마사유키)이 참가하였다.

2004년 9월 12일 '세계문화오픈 2004'(서울)의 문화행사에 '우타고에'가 출연하였다.

2005년 8월 14일 광복60주년 전야제 '아시아한마당'에 참가하였다(☞사진 참조). 아코디언 반주

2006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전야제인 '2006 님을 위한 행진곡'에서 '우타고에'는 <아침이슬>을 한국어로 열창했다.



광복60주년 전야제 '아시아한마당'에서(광화문)

한국에 소개된 지 9년째를 맞는 '우타고에'는 다양한 진보적인 문화행사에 참가해 왔는데, 이 '우타고에'를 소개하는 매스컴의 보도는 주로 '민음협'의 다음과 같은 이해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일본 '우타고에'운동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반전, 평화, 노동운 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온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운동이다. 특히 1970년과 1972년에 오키나와 반환의 국민적 바람을 주제로 한 가극 <오키나와>는 전국 60개의 무대에 올려져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우타고에는 80년대에 들어와서도 반핵, 평 의 초근운 에 호응하여 '반핵일본의 음악가들'과 연대하여 80년대에 매년 200회 이상의 반핵, 화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현재 평 를 추구하는 운 과 관련하여 여성, 장애인, 복지, 청소년, 노동자, 시민 등 등 이른바 국민 요 에 부흥하는 운동으로서 그 역사를 한층 더 쌓아올리려는 노력을 펴하고 있다. 또한 우타고에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우타고에 제전'을 여는데, 전국에서 수천 개 단체가 참가 신청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1)(강조는 인용자)

강조부분을 보아도 명확하듯이, '우타고에'는 주로 노래를 통해 반전, 반핵, 평화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거기에는 이 운동을 마치 평화와 인권의 옹호나 환경보호 등을 외치며 활동하는 여느 시민단체 내지는 비정부조직 같은 단체로 이해하려는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위의 소개문은 실제로 일본에서 '우타고에'운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전국조직인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utago.gr.jp>)에 실린 '우타고에'운동의 「역사」를 발췌하여 한국어역한 내용이므로, 지금의 운동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또한 이 운동의 목적을 “합창을 주체로 한 서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이며 민주적인 음악운동으로, 내외의 뛰어난 음악유산을 계승하고 전문가 및 대중적 창작 활동과 연계하여, 평화롭고 건강한 노래를 모든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1975년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규약」 제 2조)2)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위의 '민음협'의 소개문에는 이 운동이 태동·성장·발전하여 최성기를 맞은 후 급격히 쇠퇴해 가는 1960년대까지의 기술이 결락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운동의 역사를 정확히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타고에'운동의 긴 역사 속에서 널리 애창되었던 대표적인 노래가 무엇인지조차 소개되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후 일본의 정치상황 속에서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개화했던 이 음악운동의 역사가

1) 민음협 홈페이지(<http://www.koreamusic.co.kr>)의 「일본 우타고에와의 교류」 참조.

2) 井上頼豊 편(1978) 『うたごえよ翼ひろげて』, 新日本出版社, p.209-210;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의 「목적」

무시되고, 사회운동이 침체기에 돌입한 70년대 이후의 이 운동의 모습만을 전하는 것에는 지금의 대중매체의 취향에 편승하여 무난한 내용의 정보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우타고에’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불충분한 이해는, 예를 들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³⁾하는 한편으로, 2008년의 운동 60주년을 앞두고 “핵도 (미군)기지도 없는 21세기에 자유와 평화의 노랫소리(우타고에)를 높이 울리자”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이 운동의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상호연대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기술에서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80년대 이후의 이 운동의 전개상황은 앞 시대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갱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를 소상히 추적하는 것은, 반핵과 평화를 노래하는 이 운동의 지금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한일 간의 진정한 문화교류 및 연대운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를, 특히 그것을 뒷받침한 문화이론에 주목하면서 개괄하고, 운동사에서 전후와 70년대 이후의 전개에 보이는 연속·불연속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

그러면, 우선 ‘민음협’이 ‘우타고에’에 대해서 소개한 글 「일본 우타고에와의 교류」에서 소홀히 한, 1948년 창립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역사는 ‘협의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보도록 하자.

전후의 민중의 평화와 민주주의, 행복을 추구하는 요구나 행동, 투쟁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1948년 2월 10일 세키 아키코의 지도 아래 중앙합창단이 창립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타고에’운동은 시작되었다.

3)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발해진 이 항의문(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고 핵병기 개발계획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본의 피폭 체험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헌법9조와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이 북한을 비난하며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과는 일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의 우타고에 소개」

‘우타고에’운동은 아름다운 일본민족의 노래, 세계 모든 국 의 평화 노래, 사람들 생활과 투쟁을 세 가지의 창조의 원천으로 하여 활동해 왔다. 또한 ‘모두 노래하는 모임(みんなうたう會)’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의 보급 활동, ‘우타고에’ 서클을 만들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 활동도 명확히 하여 정력적으로 펴뜨려 갔다. 세계 7개 국어로 불린 <원폭을 용서 않으리>는 ‘우타고에’운동이 세계를 향해서 퍼지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60년 안보조약반대, 일하는 자의 투쟁과 연대가 하나 되어 전국에 퍼졌으며, 이후로 끊임없이 불리고 있는 <힘내자>. 오키나와 반환투쟁 속에서 탄생한 <오키나와를 돌려다오>.

이와 같이 ‘우타고에’ 등은 일관해서 화운 이나 노 운동 연결되어 전국으로 퍼져, 국 적인 음악 등으로 내외의 주목을 모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60년의 미이케(三池)안보대투쟁 속에서 활동이 비약적으로 커져, 60년대 중반에는 그 규모가 최대로 되었으며, 운동 20주년(1968년)에는 가극 <오키나와>의 제작·상연운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우타고에’운동은, 성악가이자 패전 전부터 ‘일본 프롤레타리아 음악가 동맹’(이하 ‘PM’)에서 활약한 세키 아키코(關鑑子, 1899~1973)와 일본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간주되었던 청년운동단체인 ‘청년공산동맹’(이하 ‘청공’)의 청년들에 의하여 1948년에 ‘청공중앙합창단(靑共中央合唱團)’(1951년에 ‘중앙합창단’으로 개칭됨)이 창립되면서 시작된다. 세키와 ‘청공’의 청년들은 합창단 창립 후, 연주활동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PM’의 활동을 계승하여 노동현장에서 ‘모두 노래하는 모임’을 통하여 직장합창단 등의 조직과 노동가, 혁명가 등의 보급 활동에 진력하였다(러시아민요, 일본민요 등의 민요도 레퍼토리에 포함되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후술). 그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통해서 음악운동의 새로운 활동가를 배출해 갔으며, 창작 활동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상황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운동진영에 제공하였다. 연주 및 보급, 교육, 창작활동을 축으로 하는 이 합창단은 이후 ‘우타고에’운동을 펴뜨리는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고정된 단원을 가진 합창단이 아니라, 항상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적으로 퍼져 갔으며, 이윽고 ‘청공(靑共)’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독자적인 ‘우타고에’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우타고에’라는 명칭은 합창단에서 발행한 기관지 『우타고에(うたごえ)』(55년 4월 7일에 창간되어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우타고에 신문(うたごえ新聞)』의 전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아마추어 합창단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연계하여 ‘우

타고에'운동가들이 많은 노래를 직접 창작하고 퍼뜨린 것은 이 노래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전후의 '우타고에'운동이 평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과도 결부되어 있는 음악운동이었다는 점은, 80년대 이후의 운동의 전개에 관한 기술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이 한국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데는, 후술하듯이 절대빈곤의 탈출과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운동 및 사회변혁운동의 침체에 따른 이 운동의 방침전환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80년대 이후(본고 제1절 인용문)와 60년대까지의 운동사에 관한 기술(제2절 위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60년대까지의 기술에 ①노동운동이 강조되었던 점 이외에도, 운동의 주체와 그 외연을 가리키는 술어로 ②'민중'이나 '민족'이라는 말이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그런데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러한 말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③'시민'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60년대까지의 운동사에서 강조되었던 ④'국민'이라는 은 80년대 이후의 기술에도 여전히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60년대까지 운동사에 기술된 평화운동은 모두 ⑤반미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타고에'운동 속에서 창작된 노래 중 가장 자주 불리는 곡이라고 하는 <원폭을 용서 았으리(原爆を許すまじ)>(淺田石二 작사·木下航二 작곡)는, 1954년에 미국에 의한 비키니섬 수폭실험 감행에 반대하는 원폭반대 서명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탄생했다. 1953년의 우치나다(内灘)기지(현 石川縣) 반대투쟁, 1956년 스나가와(砂川)기지(현 立川市) 반대투쟁에서도 '우타고에'운동은 지원활동을 벌였다.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영속화를 확인한 조약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나 오키나와 반환투쟁이 반미의식과 강하게 결부된 내셔널리즘적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첼리스트로 전전부터 'PM'에 참가하였으며, 전후에 '우타고에'운동의 이론적·음악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노우에 요리토요(井上頼豊, 1912~1996)는, 운동 5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글에서 70년대까지의 '우타고에'운동의 고양기를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누고 있다. 1954년의 "원폭을 용서 았으리 일본의 우타고에 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 1960년대 전반의 안보·미이케투쟁의 시기, 70년과 72년의 가극 <오키나와>⁵⁾의 상연 활동기

5) 오키나와 본도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있는 섬 이에지마(伊江島)에서 1955년부터 11년간에 걸쳐 미군기지를 상대로 전개되었던 토지반환투쟁을 그린 것이다. 도민들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3,500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수용소로 갔는데, 패전 후에 귀도(歸島)가 허락되어 황폐해진 땅을 일구었다. 그러나 1955년 3월에 다시 땅이 미

가 그것인데,⁶⁾ 이것은 모두 반미·평화를 외치는 사회적 운동의 고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기지반대운동은 이 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평화운동이 여전히 반미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와 같은 집중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⁷⁾

그런데, 60년대까지의 운동의 성격을 기술한 ①⑤와, 운동의 이념이 실현되는 공동체로서 상정된 집단의 변화 양상을 기술한 ②③④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60년대까지의 노동운동(①)은 일하는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을 강조하면서 전개되었으며(②), '평화운동'의 이름으로 전개된 반미운동은 '일본민족'이나 '일본국민'을 미국의 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미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강조하면서 전개되었다(③④). 따라서 80년대 이후의 '민중'이나 '민족'이라는 말의 후퇴는 노동운동과 반미운동의 침체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군기지로 강제 수용되자, 도민들은 미군에 의한 토지 점수의 부당성과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하는 '진정구설행각(陳情口說行脚)'운동을 전개한다. 1960년대 후반이 되어 오키나와가 베트남전쟁의 최전선기지화하면서 섬을 둘러싼 반미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을 때, '우타고에' 대표단도 1966년에 오키나와를 방문했는데, 이때 이예지마의 '진정구설행각'에 대해서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우타고에'운동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가극 <오키나와> 제작이 결정되었다. 운동 안팎의 전문가들의 협력·조언을 얻어 3년에 걸쳐 완성. 1969년 12월, 도쿄 시부야공회당(澁谷公會堂)에서 초연, 1970년에는 제1차 공연으로 전국 31회, 1972년에 개작되어 제2차 공연으로 전국 32회의 공연을 성공리에 완료하였다고 한다.

6) 井上頼豊(1996) 「うたごえの發展と飛躍への期待」, 『前衛』 668, p.195-196.

7) '우타고에'운동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정리하면, 최근의 長木誠司(2004·2005) 運動ムーブマンとしての戦後音楽史 1945~ ⑨~⑭: うたごえ運動 I ~ VI, 『レコード芸術』 53-9~12·54-1~2가 언급하고 있듯이, 50~60년대의 '우타고에'운동의 압도적인 과급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매스컴에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의 음악사나 사회사 연구로부터도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운동사의 정리는 지금까지 운동 내부에서 행해진 작업이 대부분이고, 외부에서 타자의 시점으로 이 운동을 바라보는 연구는 최근에 서서히 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성과로는 甫出頼之(2002) 「うたごえ運動の歴史的展開: 1946年から1960年を中心に」, 『エリザベト音楽大學研究紀要』 22; 寺田眞由美(2003) 「うたごえ運動における民謡の意義: 昭和30年代の《木曾節》を例として」, 『表現文化研究』 3-1, 神戸大學表現文化研究會 등이 있으며, 長木誠司(2004·2005) 논문은 당시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 운동을 일본의 전후 음악사 속에 정위하려는 본격적인 연구 성과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사에서 전후의 이 운동이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지적은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평화운동이 반미·반제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나, 80년대 이후가 되면 노동운동이라는 축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평화운동도 반드시 '반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의 기술에 편중되어 있어,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시점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전후의 운동 당시 ‘민족’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던 ‘국민’이라는 말이 지금도 여전히 운동의 핵심어로 가리잡고 있는 것(④)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부르주아’라는 의미로 한정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시민’이 등장하는 것(③)과 이 운동의 방향 전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지금의 ‘우타고에’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운동이 걸어왔던, 화려했지만 지양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우타고에’운동의 이념: 민족과 민요의 발견

‘우타고에’운동의 전후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중’을 강조하는 노동운동(①)과 ‘민족’ 내지 ‘국민’을 강조하는 반미·평화운동(⑤)이 어느 것도 억압받는 다수의 해방(독립)투쟁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인식사 속에서 깊이 맺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천의 배경에는 일본의 전후의 문예사를 지배했던 일본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⁸⁾

제2차세계대전 패망 후, 그때까지 천황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억압받던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복귀했으며, 1947년을 전후해서 연이어 공산당에 입당하게 된다. 그리고 48년에는 민족의 독립에 대한 위기감과 맞물리면서, 그때까지의 계급투쟁을 주로 하는 당의 기본방침이 반미·반제를 외치는 ‘민주민족전선’으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당의 문화정책도 민족주의로 일변한다. 1947년 12월 일본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결정된 문화정책의 기본방침(「문화 활동의 기본적 방향과 당면 임무」)에서는 “일본민족문화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요청되었으며, “이것은 반혁명적, 반인민적이 아닌,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모든 문화인 및 문화 활동가와의 협력, 문화에 있어서의 인민전선의 강력한 전개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되었다.⁹⁾ 그런데 이러한 방침 자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문화운동의 지도권을 획득”할 것을 목표로 삼고, “천황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 등”을 “반민주주의적인 사상과

8) 長木誠司(2004・2005) 『運動ムovementとしての戦後音楽史 1945～ ⑩: うたごえ運動Ⅱ』, 『レコード芸術』 53-10, p.79-80.

9) 藏原惟人(1969) 『藏原惟人評論集』 제6권(文化論Ⅰ), 新日本出版社, p.525-539. 藏原가 기초

문화”로 규정하여 그 일소에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했던 전년도 제5회 대회(1946년 2월)에서 결정된 문화정책의 기본방침(「일본공산당의 문화정책」)¹⁰⁾으로부터의 명백한 노선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제6회 대회 때는 ‘청공(靑共)’이 “문화활동의 중심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¹¹⁾고 강조되었다. 당의 “문화전문가”인 세키와 ‘청공(靑共)’의 청년들이 ‘청공중앙합창단’을 결성한 것은 이 직후로, 이 합창단을 중심으로 하는 ‘우타고에’운동은 당의 변화된 문화정책의 모범적인 실천운동의 중요부분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 운동 초기에는 명문화된 공동강령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운동의 목표는 이로써 공공연히 개진되었으며, 단원들은 당시 당의 문화운동의 중심에서 추진적 역할을 했던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 1902 ~ 1991)의 『예술론』을 암기할 정도로 읽고 토론을 했다고 한다.¹²⁾ 이러한 운동이념은 노래운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데, 당시 ‘우타고에’운동 속에서 창작되어 새로운 노동가로서 널리 애창되었던 곡이 <민족독립행동대의 노래(民族獨立行動隊の歌)>라는 사실도 이러한 사정을 전하고 있다.

<민족독립행동대의 노래> (山岸一章 작사·岡田和夫 작곡, 1950)

1. 민족의 자유를 지켜라/ 결의하라 남부(조국)의 노동자
영광된 혁명의 전통을 지켜라
2. 민족독립을 쟁취하라/ 고향 남부공업지대
두 번 다시 초토의 벌판으로 만들지 말라
(후렴) 피에는 정의의 피로 내뿜아라/ 민족의 적 나라를 팔아먹는 개들을
전진 전진 굳게 단결/ 민족독립행동대 앞으로 앞으로 전진¹³⁾

이것은 1950년에 일어난 일본국유철도의 정원법(定員法) 반대 투쟁 속에서 국철 노동자인 야마기시 잇쇼(山岸一章)가 쓴 시에 중앙합창단의 창작반에서 활동한 당시 19세의 단원인 오카다 가즈오(岡田和夫)가 곡을 붙인 것으로, 새로운 혁명가로서 이후 10여년 이상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반미·평화시위에서도 끊임없이 불린 노래이다. 이 노래는 노동운동이 곧 민족

10) 藏原惟人(1969) 위의 책, p.511-524. 宮本顯治가 행한 보고.

11) 藏原惟人(1969) 위의 책, p.537.

12) 井上頼豊 편(1978) 앞의 책, p.21.

13) 關鑑子 편(1953) 『青年歌集』 第1篇(改訂版), 音楽センター, p.126.

의 평화와 독립을 위한 투쟁이며, 노동자는 독립투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는 ‘우타고에’운동이 낳은 스타인 미이케(三池) 탄광 노동자 출신 작곡가인 아라키 사카에(荒木榮, 1924~1962)는, 전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하는 미이케투쟁(1959~60)에서 단결을 외치는 <힘내자(がんばろう)>(森田ヤエ子 작사, 1960)¹⁴를 만드는 한편으로, 오키나와 반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불린 <오키나와를 돌려다오(沖縄を返せ)>(全司法福岡高裁支部 작사, 1956)¹⁵의 작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공산당의 새로운 문예이념은 ‘우타고에’운동의 레퍼토리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민족’의 표상으로서 ‘일하는 민중’의 음악적 기반으로서 ‘민요’가 강조된 것이 그것인데, ‘민요’는 전후의 이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어이다. 중앙합창단은 1948년 2월의 창립무대에서부터 전전부터의 혁명가인 <동지여 굳게 뭉쳐라(同士よ固く結べ)>(유태인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가, 1926) 이외에, 당시 러시아민요로 소개되었던 <우리들의 초원(Poljushko Pole)>과 함께 일본의 민요인 <기소부시(木曾節)>를 합창했으며, 민요는 노동가나 혁명가와 함께 ‘우타고에’운동의 텍스트 가집인 『青年歌集』¹⁶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는다.

이와 같이, 이 운동의 개시와 함께 ‘일하는 민중’의 외연에 ‘일본민족’을 상징하고 “일본의 민족적인 전통이 낳은 노래”인 민요나 민족예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전전의 ‘PM’과 같은 진보적인 노래운동과의

14) 1. 힘내자 치켜 올리는 하늘에/ 검붉은 남자의 주먹이 있다/ 불타는 여자의 주먹이 있다/
2. 힘내자 치켜 올리는 하늘에/ 손을 맞잡는 동지의 주먹이 있다/ 밀려오는 동지의 주먹이 있다

3. 힘내자 치켜 올리는 하늘에/ 나라의 안팎의 주먹이 있다/ 승리를 부르는 주먹은 하나
(후렴) 투쟁은 여기에서 투쟁은 지금부터 (關鑑子 편(1962) 『青年歌集』 第8篇, 音樂センター, p.125)

15) 단단한 땅을 부수고/ 민족의 분노에 불타는 섬/ 오키나와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선조가/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군 오키나와여/ 우리들은 외친다 오키나와여/ 우리들의 것 오키나와여/ 오키나와를 돌려다오/ 오키나와를 돌려다오(關鑑子 편(1960) 『青年歌集』 第6篇, 音樂センター, p.110)

16) 1948년 12월에 첫 『青年歌集』이 발간되었고, 이것을 재간한 것이 1951년 11월에 간행된 『青年歌集』 제1편이다. 1953년 5월에 간행된 『青年歌集』 제1편은 이것의 개정판이다. 편집방침은 일본국민의 현대의 투쟁과 생활의 노래, 일본민요와 근대의 훌륭한 가곡, 세계 각국의 민요와 노동가와 근대의 뛰어난 음악작품을 수록하는 것. ‘우타고에’운동의 보급과 교육에 활용되었던 이 가집은 이후 1969년 12월에 제10편이 간행된 것을 끝으로 운동사에서 사라진다.

결정적인 차이이다.¹⁷⁾ 운동의 지도자인 세키 아키코는 'PM'의 “최대의 결점은 민족음악, 민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였다”¹⁸⁾고 비판하고, “일본의 음악이나 무용의 전통을 살려서 현대의 생활 속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과 전문가의 노력과 교류”¹⁹⁾를 요청하고 있다. 사실 'PM'이 민요를 경시한 것은 그들이 서양음악의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당시에 지배층의 국수주의와의 투쟁이 전면화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요란 국수를 상징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타고에'운동 속에서의 민요는 새로운 '국민음악'의 건설을 이끌어 내는 기초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전통으로 발견되었다. 더욱이 그 '민요'는 미국산 문화의 압박으로부터 민족문화의 독립을 지킨다는 진보적인 의미까지 실려, '민주민족전선' 즉 민족전체가 평화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것의 인위성을 자연성으로 포장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때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초월하는 개념으로서의 '국민'은, 운동 속에서는 범계층적 연대, 특히 그 중에서도 대중과 전문가의 교류와 연대가 강조되는 술어로 사용되었다. 유사한 의미로 쓰인 '민족'이라는 말이 특히 외래문화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함의하는 것과는 용법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우타고에' 이외에도 이 당시에 좌파지식인(전문가)을 중심으로 '민요'나 '민화(民話)', '민무(民舞)', '민예' 등에 주목하여 전개되었던 운동에도 공통된다. 예를 들면 “포크로어에서 배우자”고 거듭 강조한 일본사학자 이시모다 쇼(石母田正, 1912~1986)가 “역사학을 국민의 것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민적 역사학운동'을 전개한 것이 대표적이다.²⁰⁾ '우타고에'운동에도 '국민음악' 건설을 지향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대표적인 예로, 3년 동안의 창작과정을 거쳐 1969년에 완성된 가극 <오키나와>는 전문가들과 대중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민요를 진보적인 합창운동으로 도입해야 했던 운동의 초기에는 그 선례를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공산권국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

17) 甫出頼之(2002) 앞의 논문, p.68.

18) 關鑑子(1956) 『うたごえ運動の理論』, 『知性』 3-5; 동(1971) 『歌ごえに魅せられて』, 音楽センター, p.146.

19) 關鑑子(1951) 『青年歌集'再刊にあたって』, 『青年歌集』 第1編; 동(1971) 위의 책, p.75-76.

20) 石母田正(1952) 『歴史と民族の発見: 歴史學の課題と方法』, 東京大學出版會, p.101-143.

었다. 『青年歌集』에는 러시아, 중국, 폴란드 등의 민요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러시아민요는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가 48년에 귀국한 이노우에 요리토요 등은 억류중의 문화경험을 토대로 러시아민요뿐만 아니라 소비에트가 어떻게 민족유산을 발전시켜 갔는지를 소개했다.²¹⁾ 조선(북한)의 민요 <아리랑>, <도라지> 등이 소개된 것도 이때이며, 북한의 문예정책을 철저하게 규제했던 김일성의 「우리 문학예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작가, 예술가들과의 담화」(1951.6.30)²²⁾도 곧바로 소개되어 문화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의 하나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기도 했다.²³⁾ 이러한 국제적인 운동의 선례와 공산권국가들과의 빈번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그에 걸맞은 일본민족의 노래로서의 일본민요의 발견이 요청되었다는 견해²⁴⁾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민요의 발견에 있어서의 보다 근본적인 동인 어디까지나 공산당의 문화정책의 전환이며, 그 실천 속에서 각국의 민요가 참조되고 일본의 민요가 발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합창단은 공산당이 무력투쟁노선을 강화해 가고 레드 퍼지가 행해지는 가운데 공산당의 청년단체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여전히 공산당의 ‘문화정책’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의 중앙합창단의 강령에도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중앙합창단은 아름다운 일본민족의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며, 여러 민족의 평화의 노래를 드높고 활기차게 퍼뜨린다.

우리들은 이것을 가로막는 미일 반동지배·매국정부·식민지문화에 대하여 모든

21) 井上頼豊의 관련 저서로는 『ロシアの民謡』(筑摩書房, 1951), 『ソヴェト音樂の三十年』(筑摩書房, 1952), 『ソヴェト合唱曲集』(筑摩書房, 1953) 등이 있다.

22)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민족문화 발전의 기본 노선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문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물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김일성(1980)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p.405)

23) 김일성의 담화는 『新日本文學』에 「祖國解放戰爭と文學芸術の創造」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新日本文學』 6-10, 1951). 편집부의 주기에 “예술가의 기본임무, 그 예술로서의 고도의 표현, 낡은 것과 새 것, 민족성과 국제성의 관계 등에 대하여 배울 점이 많아, 작가·독자의 실천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p.17)고 써어 있다.

24) 寺田眞由美(2003) 앞의 논문, p.30.

국민과 함께 투쟁하며,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쟁취한다.(1953년 중앙합창단 제11회 총회에서 결정된 강령)

1950년에 코민포름으로부터 반미투쟁의 강화를 요청받고 무장투쟁을 결의하면서 심하게 분열한 일본공산당이 1955년에 무장투쟁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고 방침을 전환하여 선거에 의한 의회 진출을 꾀했을 때에도 당원들로 하여금 '우타고에'운동을 통하여 지지자를 모으도록 하였다고 한다.²⁵⁾ 그 와중에도 민족투쟁노선에 입각한 문화정책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민요도 여전히 '우타고에'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합창되었다.

운동의 지도부는 세계의 민중들이 사랑하는 민요나, 일본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향토적인 민요 속에서 청년의 심상에 맞는 것을 뽑으면, 노래운동은 반드시 퍼져갈 것이라고 확신했다.²⁶⁾ 거기에 아코디언 반주를 주로 하여 합창곡으로 불린 당시의 노동가의 선례를 샤미센 반주의 향토의 노동민요에서 찾는 조루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민요의 리듬이나 멜로디를 살리고 노동가의 투쟁의 현실을 담은 가사를 붙이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스탈린이 제창한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방침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속에서 기존의 민요들은 원가(原歌)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로이 변용되었다. 예를 들면 민요의 내용을 노동가나 혁명가 풍으로 개사(改詞)한 노래가 유행하기도 했다.

아~ 비키니 다랑어는 개도 안 먹네/ 다랑어뿐인가 물조차 마실 수 없네
숨 쉬기도 조금 걱정되네/ 나도 당신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폭실험 같은 것 하는 놈은/ 지옥 끝까지 던져버리자/ 오~이사네

이 노래는 <야기부시(八木節)>의 한 절인데, 미국에 의한 비키니섬 수폭실험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민요의 개사가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이외에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노동민요 중에서도 남녀의 사랑을 다룬 내용 등을 배제하는 등의 자체 검열을 가하여 보급하기도 했다.²⁷⁾ 이것은 '우타고에'가 “평화롭고 건강한

25) 小熊英二(2002) 『<民主>と<愛國>: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p.288.

26) 關鑑子(1971) 앞의 책, p.77-80.

노래를 널리 국민들에게 보급하여 일본의 새로운 민족음악을 만들어 낼 토대를 구축할 것”을 운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과 그 지지층으로 미성년자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것²⁸⁾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예이념의 실천으로서 가장 의의가 인정되었던 것은, 아라키 사카에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민요의 형식을 기조로 하여 서양의 음악을 도입하는 방법이었다. 아라키는 이러한 방법을 다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형식상으로 보면, 가장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골타령조(田舎節)를, 나는 주저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이 형식 속에 맥박 치는 민족의 피, 단순 솔직하고 쉽게 분노하며 정 많은 일본인적 요소·서민적 풍격을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²⁹⁾

‘시골타령조(田舎節)’란 라도레미솔의 반음을 포함하는 5음계로 이루어진 선법으로, 이 당시 민요나 민속예능에 널리 사용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아라키는 이 형식에서 연면히 이어오는 민족의 정신을 발견했으며, 민족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형식이 다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이 이 시기의 일본에 깊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이 운동의 극적인 성장·발전의 모습과 그 속에서 아라키의 많은 곡들이 애창되었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4. ‘우타고에’운동의 침체

그런데, 위의 아라키의 확신은 ‘일하는 민중’의 음악적 기반이 민요일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또한 그것이 노동운동이나 평화운동 속에서 현장성을 동반하며 널리 향유되는 한, 매너리즘이나 음악적인 미숙함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회피될 수 있다. 하지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두 가지 전제는 급속히 붕괴되어 갔다. 이미 고도경제성장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운동은 미이케투쟁을 정점으로 급속히 쇠퇴해 갔고, 60년대 이후 이 운동의 관

27) 寺田眞由美(2003) 앞의 논문, p.22-31.

28) 關鑑子(1971) 앞의 책, p.156.

29) 神谷國善(1985) 『労働者作曲家 荒木榮の歌と生涯』, 新日本出版社, p.101.

십은 안보투쟁, 오키나와 반환투쟁, 베트남 반전운동, 기지반대운동, 반핵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반미·평화운동으로 경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대중연대 기운의 약화와 사회변혁운동의 침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이와 연동하여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발전을 착실히 이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민족'이라는 말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진보적인 의미를 급속히 상실해 갔다.

또한 60년대 이후가 되면 일본의 음악문화도 급속히 다양화된다. 특히 젊은이들은 포크, 록, 팝음악 등에 열광했으며, 그들에게 '민요'는 더 이상 '우리의 노래'로 거듭나는 동적인 의미를 지닌 장르가 아니었다.³⁰⁾ 10대~30대의 젊은 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우타고에'운동에게 있어서는 운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타고에'는 이러한 상황을 미국산 음악에 의한 퇴폐화로 규정하고 대중음악과 일선을 긋지만, '우타고에'의 창작곡마저 기타반주의 곡들이 늘자, 운동의 '현대화·대중화'론이 일게 되고, 1970년에 찬반양론이 분분한 속에서 기타, 드럼 등의 반주에 의한 합창곡을 승인하게 된다. 그 한편으로, 전문가들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예술인가 정치인가와 같은 방침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분열하였으며, 일본공산당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한 정치로의 종속에 회의를 품은 회원들이 늘어났다. 더욱이 민중들 사이에서 자신의 음악적인 발전의 힌트를 얻고자 했던 그들의 초기의 동기도 대중의 음악문화의 다양화 속에서 희석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가극 <오키나와> 공연이 극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곧 이어 오키나와가 반환되어 공연의 의의가 갑자기 사라졌으며, 그 총괄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세키 아키코가 73년에 죽는다.

'우타고에'운동의 전환점을 언제로 볼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73년에 세키가 사망한 후, 그 재건을 위해 74년 2월에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제7회 총회가 개최되어 새 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규약」이 제정된 1975년 무렵으로 보고자 한다. '협의회'의 제7회 총회에서는 1964년 일본의 우타고에 제전을 피크로 74년까지

30) 『うたごえ新聞』이 1956년에 행한 애창곡 앙케이트에 따르면, 베스트 20 안에 러시아민요는 여러 곡이 높은 순위에 들어 있는 데 비해, 일본민요는 한 곡도 끼지 못했다. 寺田眞由美(2003) 앞의 논문, p.30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민요는 우타고에 실행위원회가 기대한 만큼 청년층에 침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寺田의 논문의 경우는 이 운동 속에서 공유되었던 '미래지향적인 민요'의 의미가 음미되어 있지 않으며, 아라키 사카에 등에 의한 민요의 형식을 살린 창작곡이 널리 애창되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본고와 견해를 달리한다.

양적으로 3분의 1로 감소한 현실을 인정하고, 운동의 출발점과 기본원칙, 지금까지의 주요 오류나 운동내부의 결함이 분석·총괄되었으며, 곡목의 폭과 보급의 대상을 과감히 늘리는 획기적인 새 방침을 발표하였다. ‘우타고에’운동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합창을 중심으로 하는 보급활동, 서클확대를 조직적 기반으로 할 것, 운동 내부의 폐쇄적 섹트적 경향의 일소, 잘못된 문화이론의 극복을 목표로 전국적 의지 통일과 새로운 전진을 꾀했다.³¹⁾ 이에 기초하여 결정된 「규약」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성격·목적)> 일본의 우타고에운동은 합창을 주체로 한 서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음악운동이며, 내외의 뛰어난 음악유산을 계승하고 전문가 및 대중적 창작 활동과 연계하여, 평롭고 건강한 노래를 전국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협의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랫소리는 평화의 힘”을 구호로 다음의 활동을 행한다.

(1)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우타고에를 전하는, 모두 노래하는 모임 활동을 기초로 하여, 우타고에 서클·노래하는 모임·합창단·악기서클 등 우타고에의 조직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우타고에를 퍼뜨린다.

(2) 국민의 생활·감정·요구를 음악의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국민의 생활과 투쟁을 창조의 원천으로 하여, 연주·교육·창작활동을 발전시킨다.

㉡일본의 민족적인 음악의 뛰어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다.

㉢여러 국민의 뛰어난 음악의 성과를 배워, 일본국민의 것으로 한다.

(3) 각 산업·지역·계층의 우타고에 교류를 활성화하여, 일본의 우타고에 제전을 연다.³²⁾

(4) 널리 음악단체, 음악가 및 민주적 단체와 공동의 관제에 기초하여 협력·제휴한다.³³⁾

새로운 「규약」에는 지금까지의 강령 등에 보였던 ‘반미’나 ‘독립’, ‘민중’, ‘노동운동’ 관련 표현이 사라져 있고, ‘민족’이나 ‘투쟁’이라는 말도 후퇴해 있으며, ‘산업’, ‘계층’ 이외에 ‘지역’을 운동의 단위로 묶어 시민운동으로의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이라는

31) 井上頼豊 편(1978) 앞의 책, p.11-12.

32) 현재의 「규약」에는 지역, 산업, 계층의 순으로 되어 있다.

33) 井上頼豊 편(1978) 앞의 책, p.209-210.

말에는 이미 '부르주아'라는 의미의 한정이 사라져 있으며, 「규약」 제정 이후에 지역사회 속에서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시민적 음악운동이 점차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보이는 '국민'은 이 운동이 여전히 범계층성, 대중 지향성, 전문가와 대중의 연대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의 핵심은, '시민'이나 '국민'은 더 이상 독립과 해방운동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운동의 목표도 이미 '국민음악(민족음악)의 건설'은 아니며, 따라서 그 기초로서의 '민요'의 강조도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운동의 주체들이 '우타고에'의 침체의 의미를 읽어낼 때, 운동의 방법론이나 시대적 흐름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과거의 운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직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운동의 초기에 이념을 후퇴시키면서 연대를 강조하는 '민주민족전선'은 다수를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 인위성을 '민족'이나 '민요'로 자연화하려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민족'이나 '민요'가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은 운동의 전후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일본의 민간음악운동인 '우타고에'운동은 전후에 노동운동과 반미를 기조로 한 평화운동이라는 사회운동 속에서 국민음악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했다. 운동의 주체들은 일본공산당과 깊이 연계하면서 민주민족전선에 입각한 문화정책을 이 운동 속에서 실천에 옮겼다. 즉, '우타고에'운동은 '민중'을 강조하는 노동운동과 '민족' 내지 '국민'을 강조하는 반미·평화운동이 모두 억압받는 다수에 의한 해방투쟁이라는 점에서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었던 민주민족전선에 입각하여, '일하는 민중'의 외연에 '일본민족'을 상징하고, 일본의 민족적인 전통이 낳은 음악장르로서의 민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음악 건설의 기초로 삼았다. 이를 통해 창조된 민요는 민족전체가 평화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것의 인위성을 자연성으로 포장하는 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이 진전되면서 노동운동이 급속히 쇠퇴하고, 반미·평화운동도 과거의 집중력과 영향력을 점차로 상실해 가는 속에서 '우타고에'운동도 긴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며, 주로 평화운동으로 경

도해 간다. 또한 이와 연동하여 음악문화도 급속히 다양해지면서, 민요는 대중들에게 있어서 창조적인 재료로서의 호소력을 갖는 중심장르에서 빗겨갔다.

이에 따라, ‘우타고에’운동은 과거의 민요적 전통에 기초한 국민음악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고, 지금까지의 문화이론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를 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적인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내셔널리즘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각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의 국민은 전문가들의 다수로부터의 고립을 거부하는 실천적인 연대의 장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70년대 이후에 당파성을 배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진보적인 시민운동으로 거듭난 ‘우타고에’운동은 이만큼의 역사적인 굴곡을 겪어지고 있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소중한 시선에서부터 진정한 문화의 교류와 연대는 시작될 것이다.

【参考文献】

- 石母田正(1952) 『歴史と民族の発見: 歴史学の課題と方法』, 東京大學出版會, p.101-143.
- 井上頼豊 편(1978) 『うたごえよ翼ひろげて』, 新日本出版社, 전면.
- 井上頼豊(1996) 「うたごえの發展と飛躍への期待」, 『前衛』 668, p.195-196.
- 小熊英二(2002) 『<民主>と<愛國>: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p.288.
- 金日成(1951) 「祖國解放戰爭と文學芸術の創造」, 『新日本文學』 6-10, p.17-22.
- 藏原惟人(1969) 『藏原惟人評論集』 제6권(文化論 I), 新日本出版社, p.511-539.
- 神谷國善(1985) 『勞働者作曲家 荒木榮の歌と生涯』, 新日本出版社, p.101.
- 關鑑子 편(1953) 『青年歌集』 第1篇(改訂版), 音樂センター, p.126.
- 關鑑子(1971) 『歌ごえに魅せられて』, 音樂センター, 전면.
- 長木誠司(2004・2005) 「運動ム-ヴァンとしての戦後音樂史 1945~ ⑨~⑭: うたごえ運動 I ~VI」, 『レコード芸術』 53-9~12・54-1~2, 전면.
- 寺田眞由美(2003) 「うたごえ運動における民謡の意義: 昭和30年代の《木曾節》を例として」, 『表現文化研究』 3-1, 神戸大學表現文化研究會, p.22-31.
- 甫出頼之(2002) 「うたごえ運動の歴史的展開: 1946年から1960年を中心に」, 『エリザベト音樂大學研究紀要』 22, p.67-79.

要 旨

本稿は、1948年に始まり、今日まで続いている日本の民間音楽運動である「うたごえ」運動の現在のあり方を理解するために、運動の戦後史を、それを支えた文化理論に注目しながら分析し、運動における戦後と70年代以降の展開に見られる連続・不連続の意味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

「うたごえ」運動は戦後、労働運動と反米平和運動などの社会運動の盛り上がりの中で国民音楽の建設を目標にその活動が開始された。運動の主体は戦後の思想界に最も影響力のあった日本共産党と深く連携しながら、民主民族戦線に基づいた文化政策を運動の中で実践していった。その内容は、「働く民衆」の外延に、同じくアメリカに抑圧されている存在としての「日本民族」を想定し、日本の民族的伝統が産み出したジャンルとして民謡を積極的に取り上げ、国民音楽の建設への基礎を築くことであった。これによって新たに創造された民謡には、民族全体が平和や独立のために戦うことを伝統に基づく自然なものとして受け入れさせる役割が期待されていた。

だが、60年代以降になると、高度経済成長が進められるにつれ、労働運動が急速に衰退し、反米・平和運動もかつてのような集中力や影響力を次第に失っていった。こうした社会的な流れと連動して日本の音楽文化も多様化し、大衆にとって民謡は既に国民の生活・要求を取り入れた歌としての創造的な材料ではなくなっていった。その中で「うたごえ」運動も沈滞期に入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うたごえ」運動は70年代における社会運動の急激な衰退を受けて、運動の再建を目指して新しい方針を打ち出した。それによると、過去の民謡的な伝統に基づいた国民音楽の建設という目標は事実上撤回されている。さらに、それまで過去の文化理論に規制されて無視されてきた多様な音楽的な要素を受け入れる姿勢を示すようになった。だが、国民の連帯を強調するなど、依然としてナショナリズム的な性格を捨てきれない。しかし、そこでの国民には、専門家の多数からの孤立を戒める実践的な連帯の場としての意味があることも見逃せない。

以上のような戦後史を経、70年代に党派性を排除し、地域社会の中で連帯を導き出す進歩的な市民運動に生まれ変わり、反戦・平和運動を続けながら、新たな運動の浸透を目指しているのが現在の「うたごえ」運動の姿である。

キーワード：うたごえ運動、音楽運動、労働運動、平和運動、戦後史、国民、民族、民謡、国民音楽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153-860)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9번지 33호 건우아파트 205호
電 話 : 02-895-1954
e-mail : amil226jp@yahoo.co.kr